

# 최저임금 인상·에너지전환 부작용 ‘도마 위’

산업부·중기벤처부 국회 업무보고서 여·야의원들 질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사가 잘되는 식당들조차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한다”며 “정책의 방향은 맞더라도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과 김경수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시중노동임단가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함께 참여토록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같이 나눠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임금주도형 성장 정책을 펴던 나라 중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의 배 이상을 오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변인이라고 믿었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배신자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5조원을 지원하고, 대기업들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답

변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김도읍 의원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전력수요를 전망하다보니 올 겨울 10차례 넘게 수요감축요청(DR)을 발동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춰 잡았는데 이는 향후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실제치와 큰 오차를 보이고 있고, 산업부가 말하는 에너지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과감히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정형석 기자 azar76@

# 전기차 폐배터리 7년뒤면 8000개...처리 대책 없어

국내 보조금 때문에 지자체가 회수·방치

전기차에서 쓰고 배출한 폐배터리를 관리·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전기차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관리법이나 제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5년 후부터 성능이 하락하고 7년부터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부터 폐배터리 배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는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분해해서 가치가 높은 소재를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폐배터리 수거부터 활용까지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지금 폐배터리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수거하고 보관을 해야 하고, 그 이후의 관리 체계는 없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 전기차 22대에서 폐배터리가 배출됐고, 2020년에는 159대, 2025년에는 8000대에 달하는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

한다”며 “폐배터리 관리체계는 물론, 배터리에 유독물질이 포함된 만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자체가 배터리를 회수하려고 해도 차량에서 배터리를 탈거, 이송, 보관이 힘들다는 데 있다. 폐배터리는 관리를 잘못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폐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한 뒤 재사용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증기관부터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인증기관은 폐배터리를 수거해 보관하고, 성능검사를 한 뒤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인증기관을 설립한다고 해도 기준이 나열할,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소재인 리튬, 니켈 등 희귀자원은 추출해 제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대용 기자 wee@

?????

**32? ?????? ???? ?**

?? 3365? ? ?? ?? 218?? ?? ??????? ? ? ? ?  
 ????? ???? ???? ?????.

- ? ? -

- ?? : 2018? 2? 28?(???) 15?30?~
-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2017?? ? ? ? ? ? ? ? ? ?
- ??2? ?? : 2018?? ? ? ? ? ? ? ? ? ? ? ? ? ?
- ??3? ?? : ? ? ? ? ? ?

(?) ????????

# 전기기술인협회장 선거 ‘카운트다운’

‘4파전’ 레이스 돌입...13일 기호추첨, 28일 선출

전기기술인협회장 선거가 9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김선복, 엄정일, 이종인, 형남길(가나다순) 4명이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가운데 협회장 자리를 향한 선거 운동이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3면

12일 오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명의 후보자 외에 추가로 후보등록에 나선 이는 없는 상태다. 이대로 13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김선복, 엄정일, 이종인, 형남길 4명의 후보가 28일 최종

적으로 협회장 선거에서 맞붙게 될 전망이다. 4파전은 지난 2000년 선거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후보자 기호추첨은 13일 오후 6시 30분 중앙회 본원에서 실시된다.

회장 후보 4인은 22일과 23일, 26일에 각각 영남권, 충청·호남권, 수도권에서 합동소견발표회를 진행한다. 영남권은 동대구역 회의실, 충청·호남권은 대전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수도권은 안양 소재한 협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2시로 모두 동일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27일 저녁 12시까지다. 회장 선출은 28일 오전 11시 63빌딩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선거는 대의원(249명)을 통한 간접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125표)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2차 투표에서 동표가 나올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의 공약도 각양각색이다.

김선복 후보(사전일렉스 대표)는 회원

권 및 복지강화, 회원교육 인프라 개선, 협회의 효율적 혁신 운영, 정책연구의 효율적 운영, 업역의 균형발전 및 법제도 추진 등 5개 공약을 내걸었다. ▶2면에 계속

이석희 기자 xixi@

16일자 신문 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M&A사용기관

**양도양수·신규면허  
 비용지원**

건설114 T.02-522-1114  
 www.c114.com

**unionlight**  
 Emergency Light & System

웃는일만 가득하세요

謹\*賀\*新\*年

## 2018년 안전한 내 세상이야~~

이렇게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뛰어 놀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유니온라이트는  
 국내 비상조명 전문기업으로서  
 새해에도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위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대한민국의 '안전의 빛'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4다길 47 (창동)  
 www.unionlight.com  
 Tel, 1644-0408 Fax, 02-9060-600